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21:25

찬양 :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1.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씀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그 끝은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의 길이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왕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성도는 하나님이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정해 놓은 내 “소견”에 하나님의 허락만 구하고 있지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렸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